

인간해방과 인류의 발전

이지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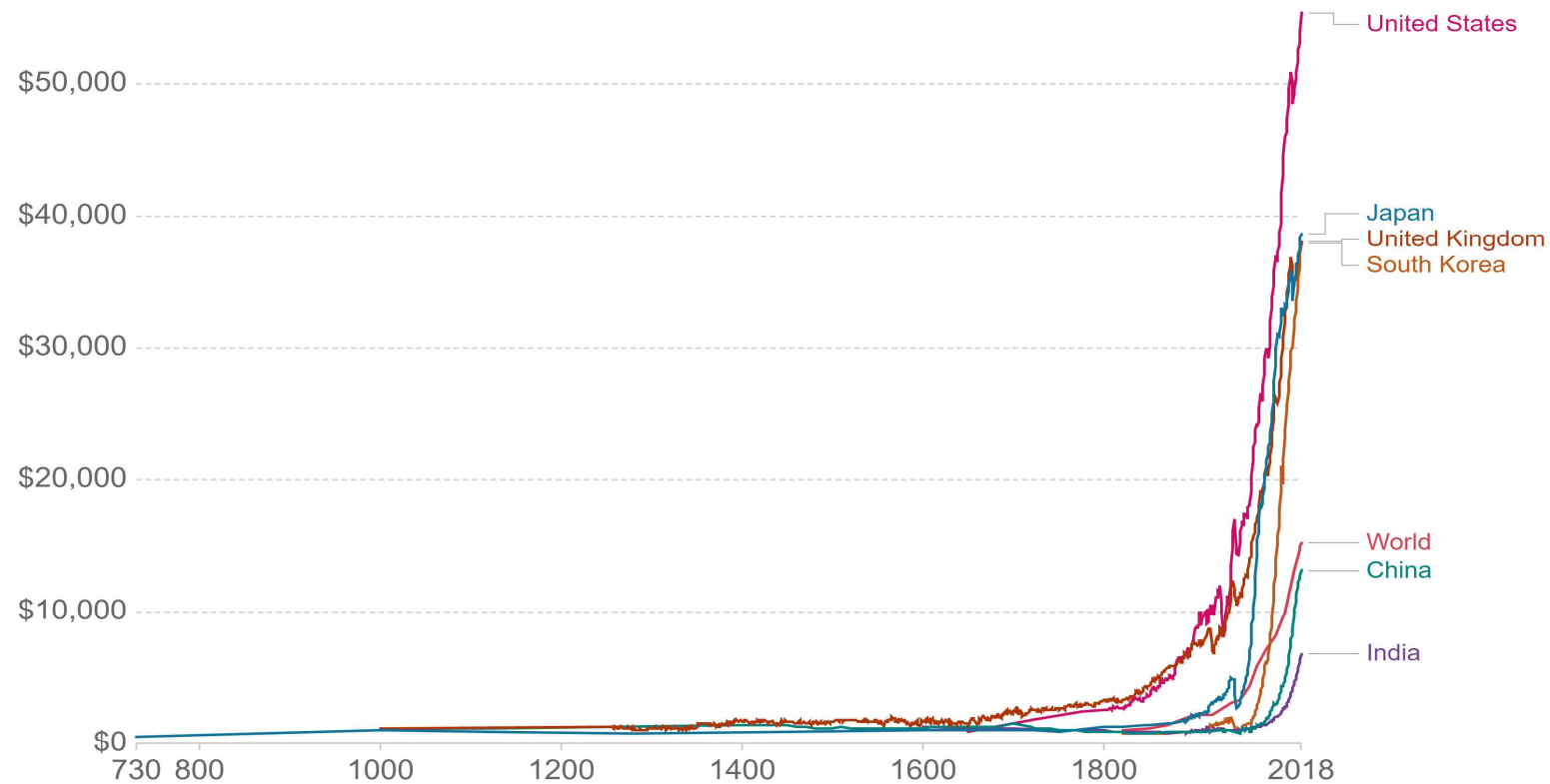
(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)

2021. 06. 11

GDP per capita, 730 to 2018

GDP per capita adjusted for price changes over time (inflation) and pric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– it is measured in international-\$ in 2011 prices.

Our World
in Data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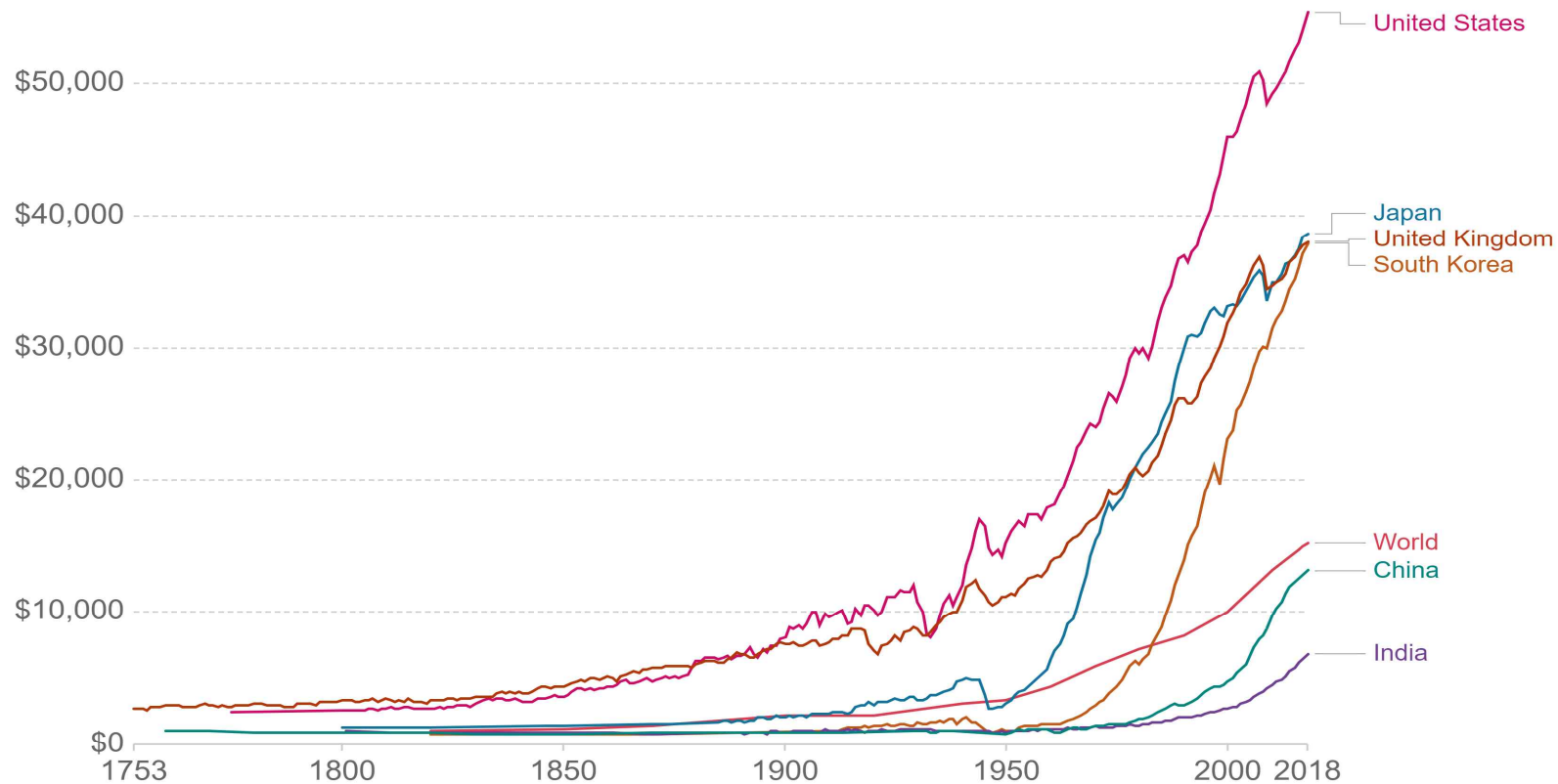
Source: Maddison Project Database 2020 (Bolt and van Zanden (2020))

OurWorldInData.org/economic-growth • CC BY

GDP per capita, 1753 to 2018

GDP per capita adjusted for price changes over time (inflation) and pric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– it is measured in international-\$ in 2011 prices.

Our World
in Data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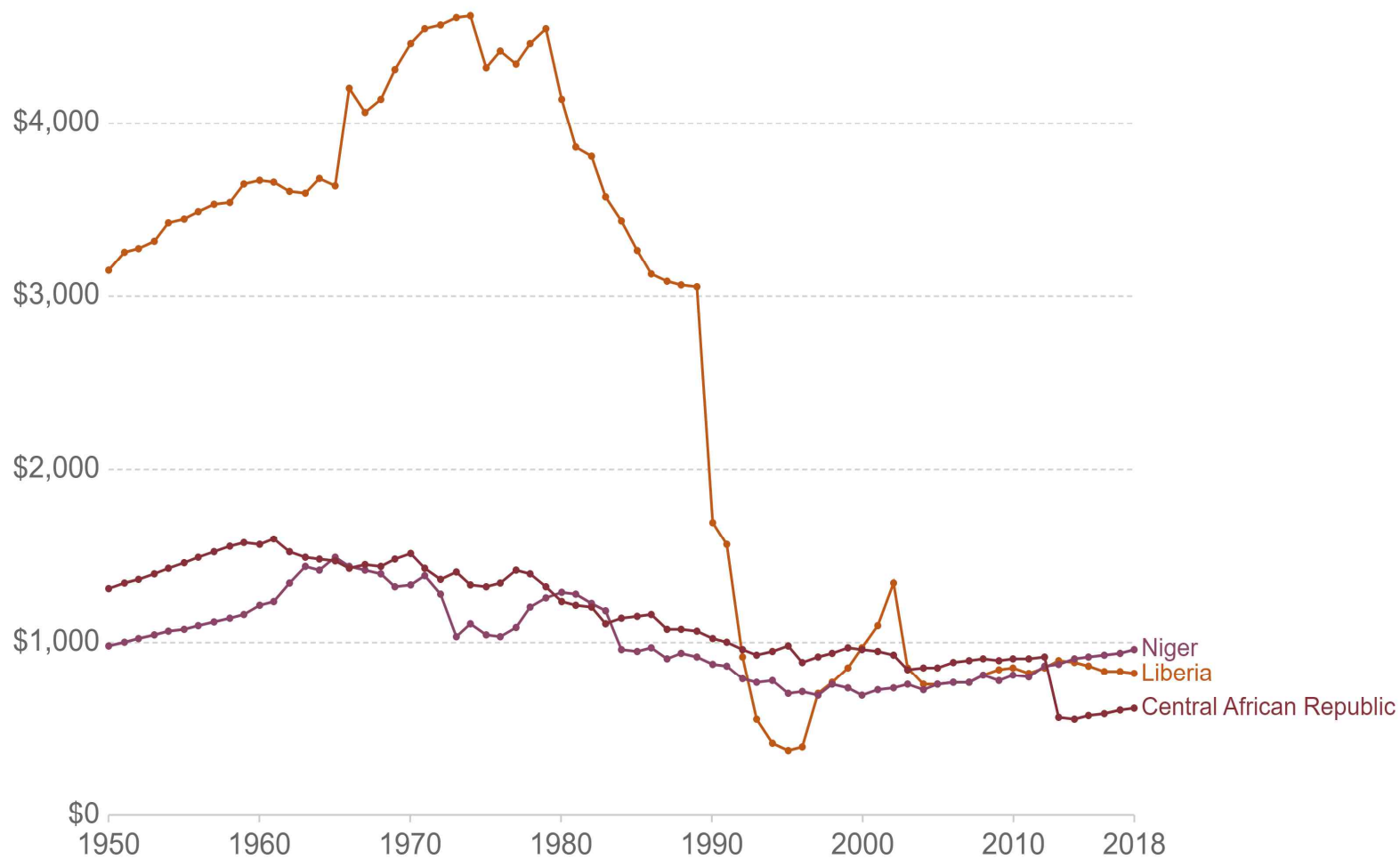
Source: Maddison Project Database 2020 (Bolt and van Zanden (2020))

OurWorldInData.org/economic-growth • CC BY

GDP per capita, 1950 to 2018

GDP per capita adjusted for price changes over time (inflation) and pric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– it is measured in international-\$ in 2011 prices.

Our World
in Data



Source: Maddison Project Database 2020 (Bolt and van Zanden (2020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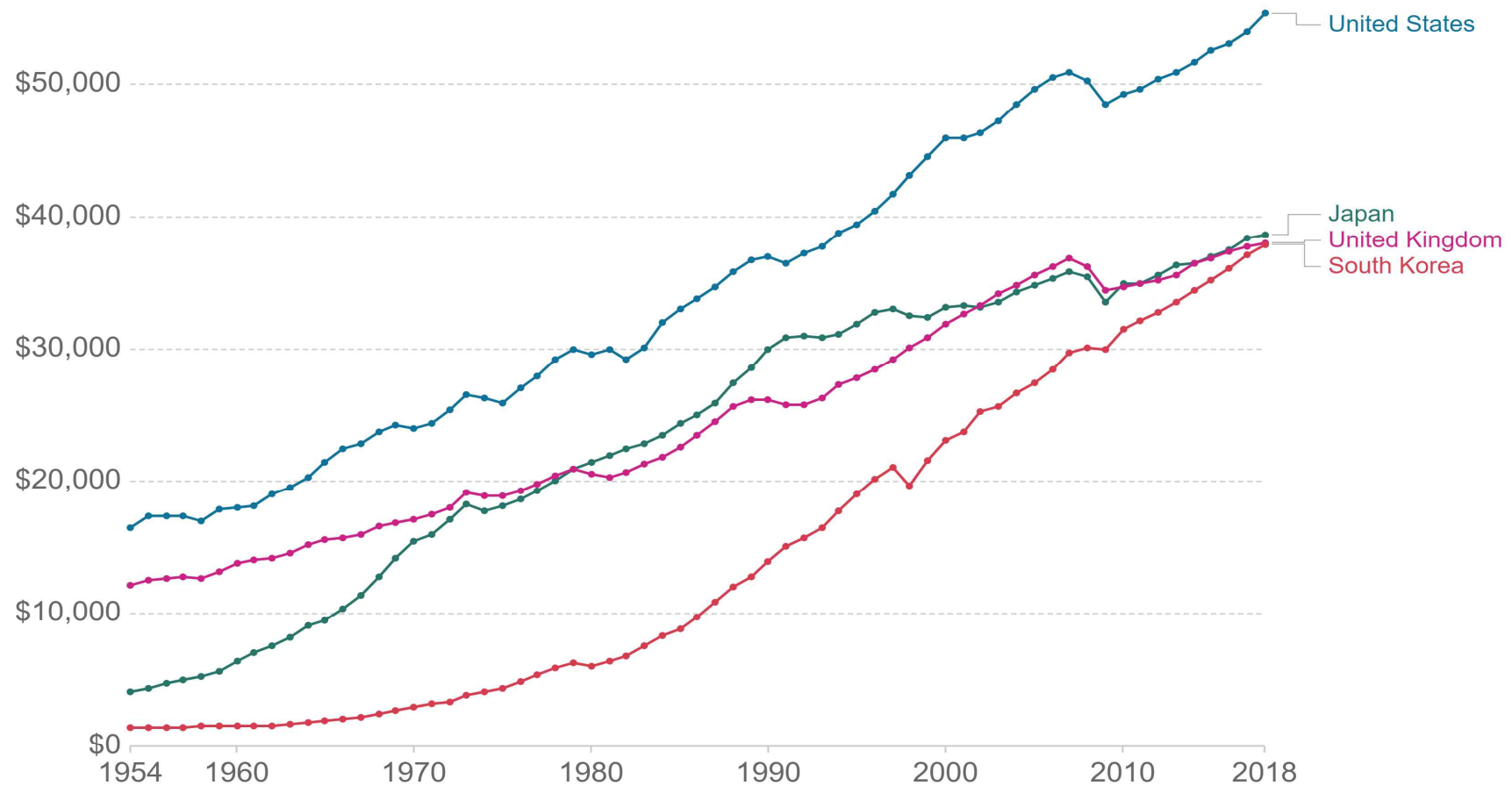
OurWorldInData.org/economic-growth • CC BY

대한민국 흥성의 역사(선발주자 따라잡기)

GDP per capita, 1954 to 2018

GDP per capita adjusted for price changes over time (inflation) and pric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– it is measured in international-\$ in 2011 prices.

Our World
in Data



Source: Maddison Project Database 2020 (Bolt and van Zanden (2020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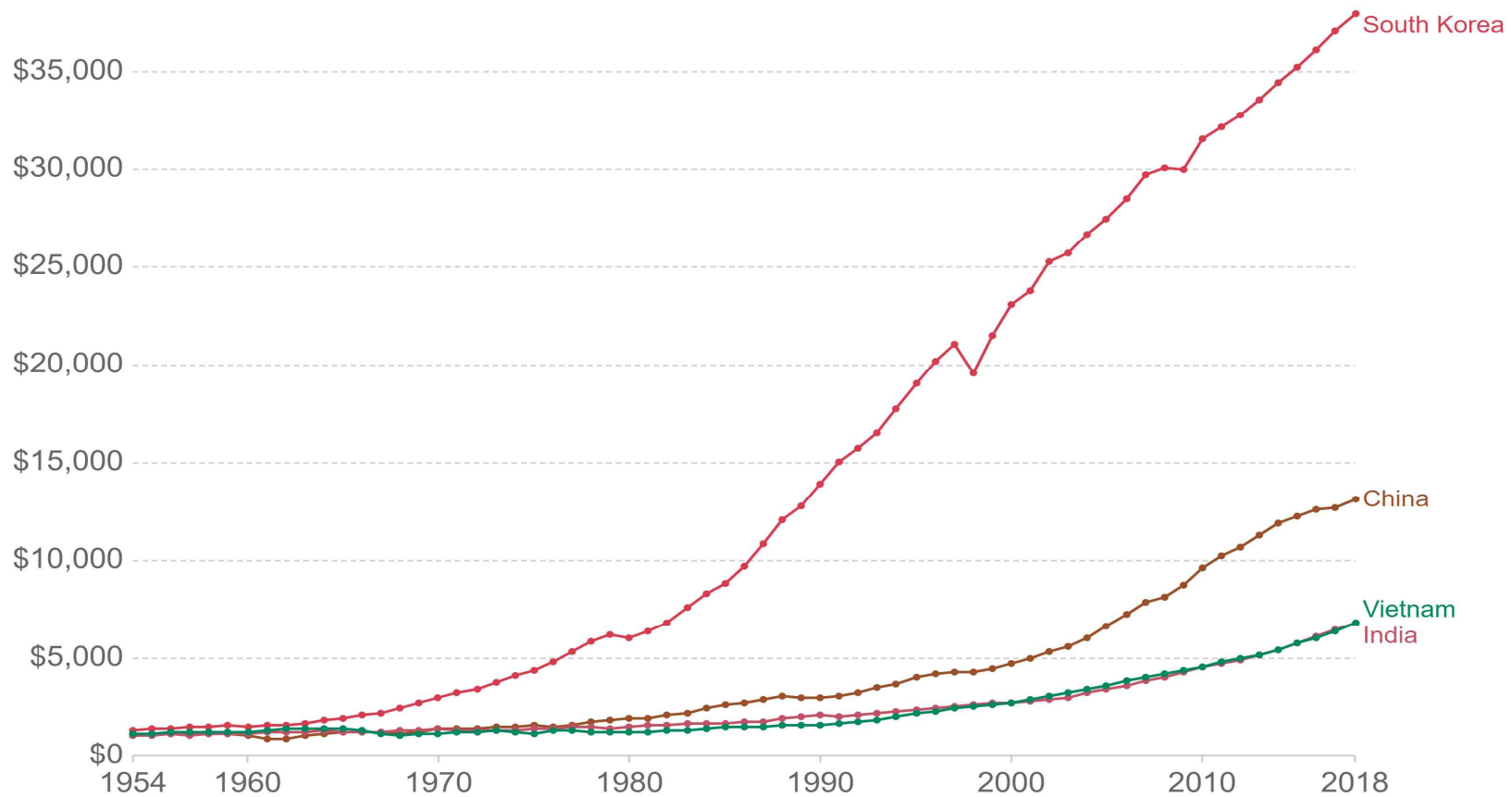
OurWorldInData.org/economic-growth • CC BY

대한민국 흥성의 역사(후발주자 따돌리기)

GDP per capita, 1954 to 2018

GDP per capita adjusted for price changes over time (inflation) and pric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– it is measured in international-\$ in 2011 price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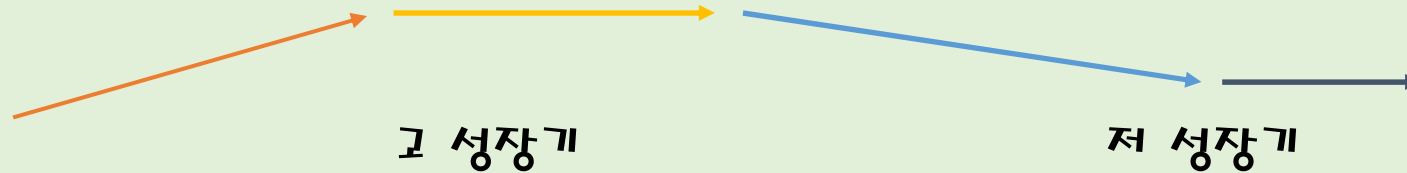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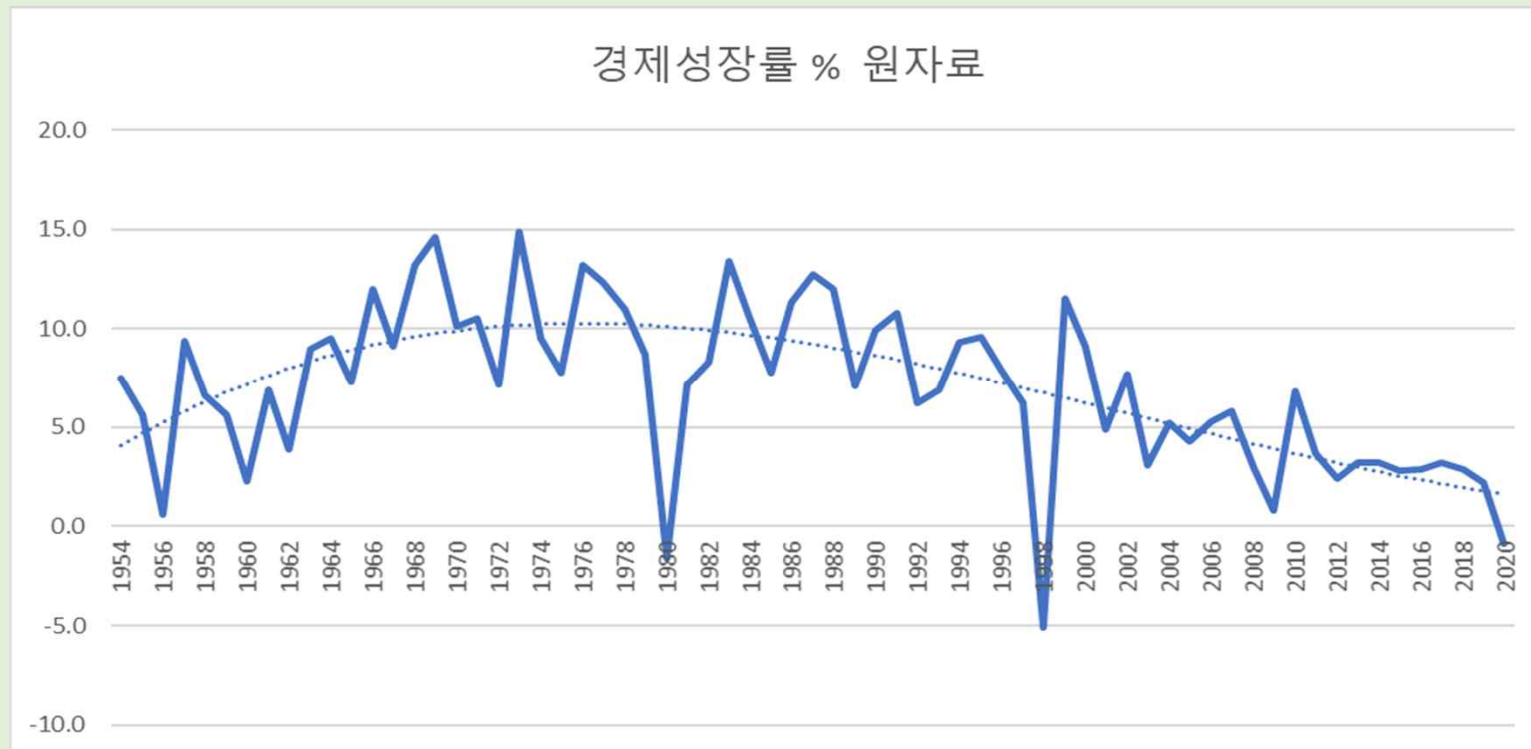
Our World
in Data



Source: Maddison Project Database 2020 (Bolt and van Zanden (2020))

OurWorldInData.org/economic-growth • CC BY

남한의 경제성장률 추이(1954 이후, %)



인류사의 대전환(Great Transformation)

- 호모 사피엔스의 발자취
 - 역사: 30만년 +
 - 경제: 거의 전 기간 동안 정체했다가 최근 300여 년에 급팽창
 - 500 ~ 1,000달러 => 18,000달러
 - 인구: 30만 년의 거의 전 기간 동안 아주 천천히 늘어나다가 최근 300여 년에 급증
 - 산업혁명 전야 = 약 10억 명 => 현재 = 약 80억 명
 - 인류의 가치(value of humans)
 - 인간해방 이전 20만년 동안에 1.2(E+16) 증가
 - 인간해방 이후 300년 동안에 4.02(E+18) 증가
 - 연율로 무려 33.5만 배 증가함
 - 인류의 역사가 300 ~ 500 년 전을 기점으로 크게 전환하였음을 보여 줌
- 질문: 어떻게 그런 대전환이 일어났을까?
- 답변: 인간해방이 인류사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

인간해방이 촉발한 산업혁명

• 인간해방

- 누구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이 시작되었다 → 보편적 사유의 시대 도래
- 누구나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었다 → 개인의 경제적 자유 확대
- 더 잘해보려는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.
- 변화와 혁신이 일상화되기 시작하였다.

• 인류의 (경제적) 역량 폭발적인 분출

- 누구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되었으며
- 그 의욕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
- 더 잘하지 않으면 경쟁자에 의해 도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으며
- 끊임 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.
-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, 자녀들의 인적 자본을 늘리는 ‘투자’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.
- 인적자본이 추동하는 경제발전

• 산업혁명의 진전

인간해방에 동참한 나라들의 중요한 삶

- 선두주자
 - 영국
- 유럽의 후발주자들
 - 적극적 동참: 프랑스, 독일, 덴마크, 네덜란드, 스웨덴, 노르웨이
 - 소극적 참여: 스페인, 이탈리아, 포르투갈, 그리스
 - 망설임: 동구
 - 거부함: 러시아
- 영국(서유럽)에서 파생한 국가
 - 미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— 모국을 능가함
- 일본 — 서구가 아닌 최초의 인간해방 국가, 본격적인 인간해방은 전후의 일
- 비교적 늦게 동참한 국가
 - 한국, 대만, 싱가포르, 홍콩
 - 중국, 베트남, 인디아

인간해방에 동참하지 않은 나라의 비참한 삶

- 인간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정도가 낮은 나라들
 - 예외 없이, 절대다수의 기층민은 가난하며 억압받고 있음
 -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, 거의 모든 중동 국가, 거의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, 다수의 중남미 국가, 몇몇 아시아 국가
- 사례 1: 쿠바
 - 자원이 풍성함
 - 경제 최강국 미국과의 거리 175km: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
 - 그러나, 최빈국에 속함
 - 왜 그럴까?
- 사례 2: NK
 - 출발: 비슷한 초기 조건에서 출발함
 - 현재: SK = 자유와 풍요 \longleftrightarrow NK = 빈곤과 억압
 - Why?

인간해방의 물결을 거스르려는 움직임

- 명제: 경제가 지속해서 발전하려면 인간해방이 이루어져야 한다
 -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임
 - 그럴 자유가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자 노력함, 그러나 누군가 기회를 박탈하면 그런 일이 불가능해짐
 - 기회가 있더라도 힘써 거둔 과실을 부당하게 빼앗기면 허사가 됨
 - 결론: 인간해방이 이루어져야 경제가 발전함
- 실상: 인간해방을 거부하는 세력이 존재함
- 까닭
 - 절대다수의 피지배자를 노예로 만드는 게 소수 지배자의 우월전략이 됨
 - 그러므로 기회만 있으면 타인을 노예로 만들고자 함
- 누가?
 - 전제군주와 그 일당, 독재자와 그 일당, 그들에게 협조하는 관료, 언론인, 문화예술인, 국학아세하는 학자 등
 -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폭력집단, 자릿세를 뜯는 건달패, 학교 폭력배, 갱패 국가
 - 종업원을 노예처럼 부리는 기업가, 조직의 힘으로 구성원을 협박하는 노조, 다수의 힘으로 상대를 협박하는 이익단체, 정보조작을 통해 다중을 통제하려는 세력 등

대한민국의 선택

• 대한민국의 성공

- 식민지배와 분단의 아픔 =>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음
-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성공 => 1인당 소득 4만달러가 넘는 잘사는 나라가 됨

• 성공의 원동력

- 누구나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라는 사실이 핵심임
- 남한이 소련이나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?

• 대한민국의 인간해방

-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이 땅에서 인간해방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음
-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며 살아온 게 우리의 과거사임
- 수천 년을 이어온 노예경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게 대한민국의 건국임

• 일천한 인간해방의 역사

- 그것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짐
- 사유 ↔ 공유, 자유 ↔ 통제, 경쟁 ↔ 조화, 변혁 ↔ 기득권 고수

